

노인의 자녀와 동거희망과 지속거주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초고령노인기를 가정하여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ecisions by the Super-Aged on Their Preference of Living with Their Children and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곽인숙*
Kwak, In-Suk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uarantee elderly housing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over 85. It examined their preference of living with their children and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when they reach the age of 85. First, research shows that 69.8% of the elderly wish to live separately from their children in later years. Second, 61.9% of the elderly wish to continue to live in their current houses. Third, the elderly without a spouse, with lower levels of education and with a longer period of time in their current houses, prefer to live with their children. Fourth, the elderly who own a house, who have lived in their current house for a long time, who have a religion and who are satisfied with their houses, wish to continue to live in their current houses in later years. However, most of the houses have safety defects such as a difference of floor-level at the entryway, lack of gas and smoke detectors and slippery bathroom floors. Thus, the elderly need to be supported by providing proper housing renovations for their safety and wellbeing.

Keywords : Super-aged Elderly, Living with Their Children,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Defects of Houses

주요어 : 초고령노인, 자녀와 동거희망, 현재의 주택에서 지속 거주, 주거결함

1. 서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르며, 최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이 모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섰고, 전남의 경우는 29.4%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그 중 85세 이상의 초고령노인의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1.3%, 8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0.8%이나,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38%, 8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초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http://www.kostat.go.kr/>, 2011).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85세 이상의 초고령노인의 증가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초고령노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초고령 노인들은 신체기능의 약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통제감이 약화되는 등의 부정적 변화가 나타난다(Jeon, 2010).

그러한 결과로 고령자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생활의 주요공간이 주택이 되므로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주거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익숙해진 주거시설이나 환경에 의존성이 커지므로 열악한 주거환경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며, 주택이 안정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합하면 고령자의 삶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Park, 1995; Kim, Lim, & An, 2002에서 재인용).

또한 노인이 생활하는 주택의 형태와 질, 집의 위치는 노인의 독립성, 안정성, 프라이버시,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의 참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접근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노인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겪는 노인들의 어려움은 젊은이들에 비해 심각하다. 그러나 노인은 수입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축소되고, 자녀의 독립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심신이 쇠약하여 장애를 가지기 쉽다. 우리의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다고 하지만, 인구 1천명 대비 주택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하며, 자가율도 아직 낮은 수준이며, 특히 도시지역의 독거노인의 경우는 자가 보유율이 더욱 낮아 임차가구의 주거불

*정회원(주거자, 교신저자),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안정과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노인의 경우도 건축한지 오래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설비가 낡고 특히 노인에게는 위험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Park, Choi, & Jee, 2006). 이러한 노인의 특성과 주거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노인주거보장의 필요성¹⁾이 야기된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정책에서 고령자 주택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주택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며, 주택문제는 경제적으로 많은 지출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노쇠·허약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개발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주택건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발도 필요하다. 더불어 기존 주거시설에 대한 개선과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노인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고, 운영면에서도 노인들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것이 되도록 안전장치와 함께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체적 기준에 의한 가장 보편적인 구분은(55-65세), 중기(66-75세), 후기(76세 이후)인 3단계로 나누었다(Koh, 1990). 그러나 단순히 연령에 의한 구분은 동일한 연령에서도 건강상태나 질병유무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노년기 상황에 따라 주거 욕구도 달라질 가능성에 따라 부부동거상태와 건강상태를 고려하거나(Oh & Lee, 1992), 노인의 취업여부와 건강상태에 따라(Kwak, 1998), 이태경(1995)은 노인의 건강상태, 부부동거상태, 경제적 상태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기도 했다(Lee, Kim, & Lee, 2007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변인은 노인주택에 대한 요구·선호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노후를 연령별 조사를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²⁾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기대수명은 남자노인은 76.99세, 여자노인은 83.77세로 점점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전체 노인중에서 초고령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고령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집단에 포함되어 연구되어 와서 세대간 차이를 간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85세 이상의 초고령노인기에는 일반 노인기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되며, 배우자의 죽음, 친지의 죽음,

만성질환이나 기능손상 발생³⁾ 등을 겪을 가능성이 더 커지며, 주택내 사고가능성도 증가하고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감소하고, 자기부양능력의 저하로 인해 노인학대의 비율도 높다.⁴⁾ 그러나 주거요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85세 이상의 노인들이 배제되었으며, 60-70세 연소노인들 위주의 연구결과를 초고령 노인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초고령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요구를 파악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느 연령층보다 안정된 주택환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85세 이상의 초고령노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들의 미래 주거희망과 요구를 파악하고 어떤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노인집단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세대간의 차이를 간과했던 기존의 연구들보다 좀 더 현실적인 문제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노인의 주거보장 측면에서 현재 노인들이 85세 이후인 초고령노인기에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와 지속거주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택의 현황파악을 통해 노인의 aging in place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고령노인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의 주거현황

최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과거 노인들은 무기력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노후를 위한 경제력을 갖추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등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변화와 신체적 능력의 향상 등으로 노인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설비와 시설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2006년 기준 노인 가구의 자가 거주율은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부부는 94%, 노인1인가구는 86.9%의 높은 비율을 보이나, 도시지역의 경우는 이보다 낮으며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자가

3)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의 하나인 사지가 불편하고 이동성의 약화로 거동하기가 쉽지 않다(Kim, 2007)

4) 2007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노인 비율이 5.7%인데 반해 피해노인 중 85세 이상 초고령 피해노인 수는 359명으로 17.8%인 점과 비교하면 초고령노인에 대한 학대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http://www.mw.go.kr/2007/6/11)

1) Lim et al.(2007) 노인은 경제적으로 수입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거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출처: <http://www.index.go.kr/egams/stts/>

거주율은 44.2%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일반가구의 미달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우 화장실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36.8%, 2인 가구의 경우 24.2%에 달하며, 노인입차 가구의 경우는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67.7%로 매우 높았으며, 자가거주자의 경우도 농촌지역에서는 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61.6%나 되었다.⁵⁾ 이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적 감퇴를 감안할 때 현재의 주거환경으로 인한 노인의 불편함이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짐작된다.

Park, Choi, and Jee(2006)에 의하면 농촌고령자의 사고 비율이 도시고령자보다 높는데 농촌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도시 고령자보다 더 좋았던 것으로 볼 때, 질환이나 신체 기능이 약화되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된다기 보다는 주택의 안전성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박신영(2008)은 고령자 주거안정지원법에서는 고령자에게 안전하고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기준 설정, 고령자 거주 주택의 개조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고령자의 안전하고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데 이 기준은 노화에 따라 일반 국민과 신체적 특성이 다른 점에서 이를 반영한 별도의 주거기준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고령자용 주거기준으로는 최저주거기준과 함께 최소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 주거지원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싶어도 현재의 주택이 노화로 인한 거주자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초고령노인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Jeon, 2010)에 의하면 초고령노인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중 가장 낙상에 대한 걱정이 51%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 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불행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인층의 주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대응에서 주거관련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져 왔으며, 향후 주거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주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거만족이라는 기본적 욕구의 충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2.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는 거주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평가로서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환경도 차이를 보인다. 주거만족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과 현재의 주거환경과의 비교 평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에 의해 측정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4)에서 현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불만족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노화나 건강의 악화에 대비한 주거공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주거결함은 주거상태를 규범과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발생한다. 평가기준으로 쓰이는 해당규범에 따라 주거결함은 공간, 주거소유, 주거의 질, 주거비, 근린환경 결함 등 다양하다. Park, Choi, and Jee (2006)에 의하면 도시고령자의 경우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 주택에 살고 싶다는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건교부에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 기준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노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현재의 주거상태에 익숙해져서 변화를 꺼리는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Shin, & Lee, 2008).

Lee and Lee(1997)는 주택은 삶의 공간으로 삶의 질에서 중요한 하나의 분야이며 주거만족도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분석을 했다. Kim and Seo(1987)도 주거에 대한 자아실현 및 미적 욕구가 생활만족도의 가장 큰 예측변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Park(2011)의 연구결과에서도 주거만족도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볼 때 노년기의 주거환경의 만족이나 결함의 영향은 생의 어떤 시기보다 크며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녀와 동거희망과 현 주택에서의 지속 거주

노년기의 자녀와의 동거희망과 현 주택에서의 지속 거주는 조사대상, 조사시기, 노년기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과거의 주거경험, 연령, 건강상태, 주택의 종류, 조사 시기의 아파트 공급율, 시설·설비의 차이가 노인의 주거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 비하여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고 있어 노인 단독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노인의 자녀 별거가 증가(Han, 1998; Chung, 2002)할 것이나, 수명연장으로 인해 고령기간이 길어지게 됨으로써 노인의 연령이 높아갈수록 신체적인 의존도가 높아져 자녀동거율에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Cho, & Jun, 2009). 자녀동거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건강상태로서 노년기에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는 부양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며(Kwak, 1998), 배우자의 존재 또한 노년기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와의 동거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wak & Hong, 2009).

따라서 노인의 주거선호는 노년기 상황에 따른 예측만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연령, 현재의 주거, 배우자 동거여부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Lee & Park, 2009). Kim(2007)

5)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007). Housing Welfare.

의 패널데이터에 의한 노인가구의 주거요구에 대한 연구에서 저고령 노인의 경우 자녀동거가 두 세대 간 지원교환의 성격을 가지며 자의성을 띤 반면, 80세 이상의 초고령노인의 경우 자녀동거가 노부모 부양의 성격으로 강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Park et al.(2006)의 연구에서도 74세 이전의 노인들이 노후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75세 이후의 노인들은 노후주거문제의 해결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고 했다.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노인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 능력, 신체적 능력, 동거하는 가족구성 등의 개인적 요인과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사적지원의 종류와 수준에 관련된 사회적 지원 요인과 현재의 주택의 종류와 소유, 거주지속기간 등 주거환경 요인에 의해 전반적인 주거만족, 주거결함, 생활만족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거만족, 주거결함, 생활만족 변인 등은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희망이나 현 주택에서의 지속 거주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고령노인의 자녀와 동거희망과 지속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주거환경적 요인이 현재의 주거만족도와 주거결함,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이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거만족, 주거결함, 생활만족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주거환경적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주거만족, 주거결함,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주거환경적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주거환경적 요인에 따라 초고령노인기의 자녀와 동거희망과 지속 거주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초고령노인기의 자녀와 동거희망과 지속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주거환경적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초고령노인기의 선호하는 거주형태와 거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독립변수로서 개인적 요인으로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을,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 및 친지의 지원에 대한 문항을, 주거환경적 요인으로는 주택유형, 주택소유, 거주지속기간 등을 선정하였다<Table 1>.

1) 독립변수

(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나타내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월평균 가계생활비, 주관적 경제상태, 질병의 보유,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수 등을 선정하였다. 가계의 객관적 경제상태는 월평균 가계생활비로, 주관적 경제상태는 노인이 인지한 경제상태의 양호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객관적 건강상태는 보유하고 있는 질병의 수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인이 인지한 건강의 양호 상태를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양호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10점 만점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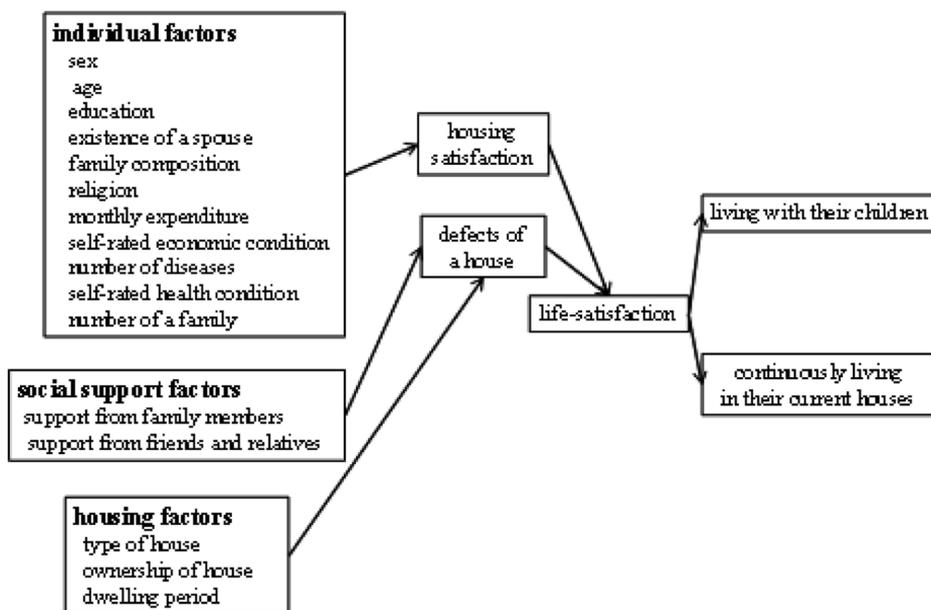


Figure 1. Their Preference of Living with Their Children and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Table 1. Definitions of Variables and Measurements

Variables	Definition and measurement
Dependent variables	
Living with their children	1=wish to live with their children 0=wish to live independently
Continuously live in their current houses	1=wish to continuously live in their current houses 0=wish to live in silver town or congregate housing
Independent variables individual factors	
Sex ^D	1=female 0=male
Age (year)	years
Education	1=none 2=elementary school graduate 3=middle school graduate 4=high school graduate 5=college graduate
Marital status ^D	1=married couple 0=single
Family composition	1= nuclear-family 2=extended-family 3=elderly couple 4= single
Religion	1=christian 2=catholic 3=buddhism 4=others 0=atheist
Monthly expenditur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last year
Self-rated economic condition	1=very bad 5=moderate 10=very good
Number of diseases	the elderly are now suffering
Self-rated health condition	1=very bad 5=moderate 10=very good
Number of a family	living with elderly
Social support factors	
Support from family members (4)	1=none 3=moderate 5=much
Support from friends and relatives (4)	1=none 3=moderate 5=much
Housing factors	
Type of house	1=detached house 2=multiplex/multi-family housing 3= row house 4=apartment house
Ownership of house ^D	1=owned 0=rent
Dwelling period (year)	dwelling period in the current house
Intervening factors	
Satisfaction of a house (3)	1=very dissatisfied 3=moderate 5=very satisfied
Defects of a house (16)	1=very safe/convenient 3=moderate 5=very dangerous/inconvenient
Life-satisfaction (3)	1=very dissatisfied 3=moderate 5=very satisfied

(): number of items

^D: dummy variables

(2)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노인에게 제공되는 가족의 지원, 친지의 지원의 2개 영역을 Zimet 등(1988)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를 참고로 각 4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각각 .857, .869이었다.

(3) 주거환경적 요인

주거환경적 요인은 주택유형, 주택소유, 거주지속기간을 매개변수로 주거만족도, 주거결함, 생활만족도 등을 선정하였다. 주거만족도와 생활만족도는 주관적으로 인지한 주택과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로 5점 척도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각각 .753, .693이었다. 객관적인 주거상황에 대한 평가는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의 결함정도를 조사자가 유니버설 디자인 규범과 비교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 5점, 매우 위험하거나 불편한 경우는 1점으로 측정한 5점 척도 1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자녀와의 동거 희망과 지속 거주에 대한 측정은 Kwak and Hong(2009)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은 전북의 중소도시와 읍면의 농촌지역을 모두 포함했으며, 65세 이상 85세 미만의 노인 300명을 조사하였다. 질문지에 의거한 1인 면담 조사로 진행하였

으며, 이중 부실 기재된 응답자를 제외한 278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2011년 3월 26일부터 4월 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통해, 개인적 요인에 따른 집단 간 노화태도 및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주거만족도, 주거결함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상관관계와 공선성 진단을 통해 변수들간의 공차한계 값이 .10보다 크고 VIF 값은 모두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초고령노인의 선호하는 거주형태와 주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36%, 여성 64%로 여성이 약간 더 많이 분포되었다<Table 2>. 이는 2011년 현재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N=278)

		Frequency	%
Sex	Male	100	36.0
	Female	178	64.0
Age	65-69	107	38.5
	70-74	73	26.3
	Over 75	98	35.2
Education	None uneducated	34	12.2
	Elementary school graduate	112	40.3
	Middle school graduate	65	23.4
	High school graduate	49	17.6
	College graduate	18	6.5
Marital Status	Married couple	123	44.2
	Single	155	55.8
Family composition	Nuclear-family	31	11.2
	Extended-family	55	19.8
	Elderly couple	98	35.3
	Single	94	33.8
Religion	Christian	133	47.8
	Catholic	26	9.4
	Buddhism	54	19.4
	Others	6	2.1
	Atheist	59	21.2
Type of house	Detached house	146	52.5
	Multiplex/multi-family housing	16	5.8
	Row house	12	4.3
	Apartment	104	37.4
Ownership of house	Owned	244	87.8
	Rent	34	12.2
		Mean	S.D.
Age (year)		71.77	5.06
Monthly expenditure (10,000won)		113.69	126.82
Economical condition (scale of 10)		5.61	2.08
Number of diseases		2.55	1.56
Health condition (scale of 10)		5.62	2.39
Number of a family		2.22	1.34
Support from family members (scale of 5)		3.84	.74
Support from friends and relatives (scale of 5)		3.74	.82
Dwelling period (year)		19.51	15.49

65-69세 노인인구의 성비가 남성:여성=1:1.16, 80세 이상 노인 남성:여성=1:2.28로 여성의 비율이 높으므로 조사 대상의 성비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은 65세-85세 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65-69세의 분포가 가장 많아 38.5%, 다음으로는 75세 이상이 35.2%, 70-74세가 26.3%이며, 평균연령은 71.77세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학교졸업이 23.4%, 고등학교졸업이 17.6%, 무학이 12.2%로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44.2%였으며, 가족구성은 노인부부가족이 3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 1인가족이 33.8%,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이 19.8%,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핵가족이 11.2%로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69.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종교가 있는 노인은 기독교(47.8%)였으며, 다음으로 불교(19.4), 천주교(9.4%)의 순이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는 21.2%였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이 52.5%로 절반이 넘었으며, 다음으로 아파트가 37.4%였다. 주택의 소유는 자가가 87.8%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17만원, 월평균 가계생활비는 113.6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⁶⁾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가족의 경제상태를 주관적으로 인지한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5.61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노인 1인당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숫자는 평균 2.55개로 관절염(52.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혈압(47.8%), 치과질환(47.1%)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0점 만점에 평균 5.62점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평균가족수는 2.22명으로 전국 평균 3.2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족의 지원은 5점 만점에 3.84점, 친지의 지원은 3.74점으로 비교적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택에서의 거주지속기간은 평균 19.51년으로 서울이나 대도시지역에 비해 한곳에서 오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현재의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러한 결과는 2008년의 국토해양부의 조사에서도 노인가구의 경우 25년 이상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5년 이상으로, 현 거주주택에서의 거주지속기간이 15년 이상된 노인이 전체 조사대상노인의 66.0%로 나타났다.

2. 노인의 현재 주거상황과 생활만족도

노인이 주택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주거만족도와 객관적 상황을 평가한 주거결함 수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수준은 <Table 3>과 같다. 주거만족도는 전반적인 주거에 대한 만족을 5점 척도 3개 문항의 합으로 평균 10.667점으로 주거에 대한 평가는 만족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개인적 편차가 매우 크다. 주거결함은 16개 체크리스트에 의한 객관적 평가로 평균 35.9점으로 결함의 수준은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간 편차가 매우 컸다.

Table 3. Satisfaction of a House, Defects of a House, Life-satisfaction (N=278)

	Min.	Max.	Mean	S.D.
Satisfaction of a house	3	15	10.667	2.594
Defects of a house	16	66	35.906	12.971
Life-satisfaction	3	15	10.447	1.972

주거결함의 요소들은 조사자가 직접 주택의 현재 물리적 상태를 위험이나 불편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가장 결함이 심각한 요소는 현관이나 실내에서 1.5 cm 이상의 단차가 있는 것(3.025점)으로 이는 주택내 노인의

6) 2010년 도시근로자가구 월소득 평균 400만원, 월평균 321만원 (<http://www.kostat.go.kr/>)

7) 현재의 주택에서 평균거주지속기간 65-69세: 16년, 70-74세: 23.34년, 75세 이상: 20.54년

Table 4. Defects of Houses (N=278)

Defects of house	Mean	S.D.
Difference of floor-level in a entryway	3.025	1.478
Gas and smoke detectors inside house	2.791	1.603
Observability of visitor inside house (peephole, intercom)	2.716	1.567
Door knobs	2.482	1.464
Slipperiness in bathroom floors	2.417	1.375
Bathroom with proper heating in winter	2.410	1.485
Slipperiness in living area	2.349	1.334
Convenience of door knobs of cupboards and cabinets	2.277	1.338
Size of working space in the kitchen	2.212	1.298
Convenience of shower in the bathroom (adjustable shower head)	2.148	1.402
Lighting of door and entrance	2.101	1.083
Sufficient storage space in the kitchen	2.050	1.273
Convenience of faucet in the bathroom	1.975	1.172
Slipperiness of kitchen floor	1.712	.967
Western- style toilet	1.637	1.147
Use of hot water in the bathroom	1.604	1.003
Total of housing defects (scale of 80)	35.906	12.971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으며(Kwak, 2009), 다음으로 주택 내부에 가스·화재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2.791점)이었다. 출입문을 열지 않고 외부인 식별 가능성(2.716점)에 대한 것으로 아파트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외부인 식별이 용이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외부인 식별이 어려웠다. 주택의 문손잡이에 대한 불편(2.482점)은 최근에 지어진 주택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사용이 편리하나, 오래된 주택은 불편함이 컸다. 다음으로 욕실 바닥의 미끄러움에 대한 위험(2.417점)으로 이는 노인의 주택내 사고중 발생 빈도가 높은 것(Kwak, 2009)으로 시급히 노인에게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욕실의 겨울철 사용의 어려움에 대한 것은 2.410점으로, 겨울에는 사용이 어려워 외출이 힘든 노인에게 더욱 불편함을 주고 있다. 실내공간 바닥의 미끄러움(2.349점), 수납장·찬장의 문손잡이의 사용편리성(2.277점), 욕실 샤워기의 사용편리성(2.148점)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노인의 물리적 주거환경은 주택의 종류나 건축연도에 따라 편차가 크며, 건축한지 오래된 주택은 시설설비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바닥의 단차와 미끄러움 등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로 판단되며 시급한 개선이 요망된다.

주거결함의 총합계는 최저 16점부터 최고 66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결함이 적고 건축한지 오래된 단독주택은 결함이 매우 많았다. 주거만족도와 주거결함의 상관관계는 -.498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객관적 주거결함보다 주관적인 주거만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리적 환경 요소와는 다른 사회심리적 요소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노인의 현재 주거상황과 생활만족도의 관련변인

연구문제 1의 주거만족, 주거결함, 생활만족이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주거환경적 요인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별은 노인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남성이 여성보다 더 현재의 주거에 만족하고 있으며($p<.01$),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집단이 가장 만족도가 낮았으며, 고등학교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았으나 중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거만족도가 높았으며($p<.05$), 월평균 가계생활비가 101만원 이상인 집단이 100만원 이하 집단보다 주거만족도가 높았다($p<.001$).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수는 1개 이하인 집단이 가장 주거만족도가 높았으며, 4개 이상인 집단이 주거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질병이 2-3개인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가족으로부터 중간 이상의 지원을 받은 집단이 지원이 낮은 집단보다 주거만족도가 높았으며($p<.001$), 친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은 집단일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주택은 자가소유인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p<.01$). 연령, 종교유무, 주택유형, 거주지속기간 등은 주거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은 주거결함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주거결함 수준이 높았으며($p<.05$), 75세 이상이 주거결함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75세미만 집단은 주거결함수준이 낮았다($p<.01$). 교육수준은 무학이거나 초등학교졸업이하인 경우 주거결함의 수준이 중학교졸업 이상 집단보다 높았으며($p<.01$),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거결함 수준이 높았으며($p<.05$). 월평균가계생활비가 50만원 이하 집단이 51만원 이상 집단보다 주거결함수준이 높았으며($p<.001$), 질병의 수가 1개 이하 집단이 2개 이상인 집단보다 주거결함의 수준이 낮았다($p<.05$). 단독가족과 친지로부터 지원이 적을수록 주거결함이 높게 나타났다($p<.001$).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보다 주거결함의 수준이 높았다($p<.001$). 주택이 공동주택보다 주거결함 수준이 높았다($p<.001$). 임차가의 주거결함 수준이 높았으며($p<.01$), 거주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주거결함이 가장 높았다($p<.001$).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종교유무, 월평균가계생활비, 주택소유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가 없는 노인이 생활만족의 수준이 높았으며($p<.01$), 월평균가계생활비가 50만원 이하 집단이 가장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그 이상의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1$). 가족의 지원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친지의 지원은 가장 많은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중간과 그 이하의 지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1$). 주택을 소유한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높았다($p<.001$).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질병의 보유, 주택 유형, 거주지속기간 등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Individual Factors Affecting Housing Satisfaction, Defects of a House, and Life-satisfaction

(N=278)

Individual factors	Housing satisfaction			Defects of a house		Life-satisfaction		
	N	Mean	F/T	Mean	F/T	Mean	F/T	
Sex	Male	100	15.060	3.084**	33.220	-2.444*	8.671	N.S.
	Female	178	13.744		37.091		9.375	
Age	65-69	107	14.355	N.S.	34.327 B	4.979**	9.252	N.S.
	70-74	73	14.366		33.352 B		8.705	
	Over 75	98	13.969		38.867 A		9.27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	146	9.999 B	3.735*	38.049 A	5.313**	9.125	N.S.
	Middle school graduate	65	10.478 AB		33.185 B		9.046	
	High school graduate	67	11.216 A		33.045 B		9.179	
Marital status	Married couple	123	14.667	-2.000*	34.024	1.990*	9.098	N.S.
	Single	155	13.863		37.026		9.136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m	219	14.304	N.S.	36.802	-2.815**	8.862	2.603**
	Atheist	59	13.915		31.593		10.066	
Monthly expenditure (10,000won)	Under 50	118	13.441 B	7.010***	42.203 A	23.398***	8.084 B	7.010***
	51-100	36	13.278 B		30.389 B		9.499 A	
	101-150	32	15.469 A		34.094 B		9.845 A	
	Over 151	90	15.178 A		29.833 B		10.066 A	
Number of diseases	1	70	14.941 A	3.136*	32.117 B	3.361*	9.441	N.S.
	2-3	134	14.254 AB		36.694 A		8.865	
	Over 4	74	13.500 B		37.149 A		9.283	
Support from family members	Little	73	12.000 B	24.258***	42.814 A	16.243***	8.024 C	10.087***
	Moderate	134	14.679 A		33.246 B		9.045 B	
	Much	72	15.528 A		33.306 B		10.333 A	
Support from friends and relatives	Little	56	11.778 C	24.024***	40.537 A	5.789**	7.833 B	12.846***
	Moderate	125	14.240 B		35.432 B		8.760 B	
	Much	97	15.557 A		33.319 B		10.299 A	
Type of house	Detached house	146	13.958	N.S.	38.819	-4.397***	9.591	N.S.
	Apartment/multiple housing	132	14.508		32.273		8.933	
Ownership of house	Owned	244	14.521	-2.829**	34.723	2.734**	9.347	-3.217***
	Rent	34	12.088		42.559		7.500	
Dwelling period	Under 10 years	77	13.840	N.S.	31.800 B	8.680***	10.241	N.S.
	10-20 years	87	14.356		34.437 B		10.262	
	Over 20 years	114	14.368		39.202 A		8.659	

*p<.05 **p<.01 ***p<.001

Table 6.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Satisfaction, Defects of a House, and Life-satisfaction

(N=278)

	Housing satisfaction		Defects of a house		Life-satisfaction	
	b	β	b	β	b	β
Sex (male) ^D	-.625***	-.226	3.611*	.136	.426	.097
Age	-.078	-.114	.594***	.234	-.020	-.047
Education	-.075	-.053	.176	.034	-.109	-.125
Marital status ^D	-1.156**	-.166	4.329**	.169	-.286	-.067
Religion ^D	.402	.048	5.307***	.171	-.619*	-.120
Monthly expenditure (10,000won)	-.002	-.078	-.015*	-.147	.002	.102
Economical condition	.564***	.339	-1.239***	-.201	.043	.042
Number of diseases	-.223	-.100	.761	.092	-.015	-.011
Health condition	-.200*	-.137	.871*	.162	-.010	-.011
Number of a family	.249	.096	-.011	-.106	-.007	-.004
Support from family members	.063	.054	.017	.004	.144*	.201
Support from friends and relatives	.362***	.333	-.490	-.122	.068	.101
Type of house (apartment) ^D	-.279	-.040	3.336*	.131	.928***	.218
Ownership of house ^D	1.938**	.184	-9.316***	-.240	.841*	.130
Dwelling period	.006	.029	.119*	.145	-.033***	-.241
Housing satisfaction	-	-	-	-	.020	.032
Defects of a house	-	-	-	-	-.035**	-.213
Constant	12.845***		1.012		6.037**	
F-value	7.932***		8.584***		49.263***	
R ² (Adj. R ²)	.313(.271)		.347(.306)		.297(.248)	

*p<.05 **p<.01 ***p<.001

^D: dummy variable

4. 주거만족, 주거결함,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문제 2의 주거만족, 주거결함,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 주거환경적 변인을 독립변수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다중공선성 여부 확인을 위해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가계총소득과 가계월평균생활비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노인의 경우 소득보다 생활비가 가계의 경제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월평균가계생활비를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성별,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주택유형, 주택소유 변인은 더미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자를 준거집단으로, 배우자유무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종교유무는 종교가 없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주택유형은 공동주택(아파트)을 준거집단으로 주택소유는 임차인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27.1%였으며, 주관적 경제상태($\beta = .339$)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 친지지원($\beta = .333$), 성별($\beta = -.226$), 주택소유($\beta = .184$), 배우자유무($\beta = -.166$), 주관적 건강상태($\beta = -.137$)의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신의 경제상태를 양호하다고 인지할수록, 친지의 지원이 많을수록, 남성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거만족이 높게 나타났다($p < .001$).

주거결함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30.6%였으며, 주택소유($\beta = -.240$)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 연령($\beta = .234$), 주관적 경제상태($\beta = -.201$), 종교유무($\beta = .171$), 배우자유무($\beta = .169$), 주관적 건강상태($\beta = .162$), 월평균가계생활비($\beta = -.147$), 거주지속기간($\beta = .145$), 성별($\beta = .136$), 주택유형($\beta = .131$)의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임차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를 나쁘다고 인지할수록, 종교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월평균가계생활비가 적을수록, 거주지속기간이 길수록, 여성일 경우, 단독주택일 경우 주거결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자신의 주택이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여성이면서 단독주택에 오래 거주한 노인일수록 주거결함이 많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으나 개조나 수리를 하기에는 경제적 능력과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택보장의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24.8%였으며, 거주지속기간($\beta = -.241$)이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 주택유형($\beta = .218$), 주거결함($\beta = -.213$), 가족지원($\beta = .201$), 주택소유($\beta = .130$), 종교유무($\beta = -.120$)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거결함이 적을수록, 가족 지원이 많을수록,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종교가 없는 경우,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노인의 생활만족에 개인적 변인이나 사회적 변인에서는 가족 지원 변인만이 영향을 미치고, 주거환경적 변인들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 Seo(1987)의 연구와 Lee & Lee(1997) 등의 연구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주므로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거주하는 환경의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된다면 노인이 삶에 더 만족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5. 초고령노인기의 자녀와의 동거희망과 지속 거주

초고령노인기의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는 30.2%, 자녀와 독립된 별도의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69.8%였다.⁸⁾ 초고령노인기에 현재 주택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61.9%였으며, 새로운 주택이나 실버타운, 노인전용주택 등으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었다<Table 7>. 이러한 결과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Statistics Korea(2007)의 연구와 Park, Choi, & Jee(200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연구문제 3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주거환경적 요인에 따라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에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질병의 수, 거주지속기간 등이 영향요인이었다<Table 8>.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인 경우 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36.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19.4%로 낮았다($p < .05$).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37.3%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높았다($p < .01$). 현재 질병의 수가 2-3개인 경우 자녀와의 동거희망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질병이 4개가 넘거나 1개보다 적은 경우는 자녀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p < .01$).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

Table 7. Preferences of Living with Their Children and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N=278)

		Frequency	%
Living with their children	Wish to live with their children	84	30.2
	Wish to live independently	194	69.8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Wish to live continuously in their current houses	172	61.9
	Wish to live in silver town or congregate housing for the elderly	106	38.1

8) Lee, Kim, & Lee(2007)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노인들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혼자/부부끼리 사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Individual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s of Living with Their Children and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N=278)

Individual factors		Living with their children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freq. (%)	Wish to live with their children (%)	Wish to live independently (%)	χ^2	Wish to continue to live in their present houses (%)	Wish to live in silver town (%)	χ^2
Education	Elementary-school	146(52.5)	52(36.1)	94(63.9)	6.807*	84(57.6)	62(42.4)	6.511*
	Middle school	65(23.4)	19(29.2)	46(70.8)		49(75.4)	16(24.6)	
	High school graduate	67(24.1)	13(19.4)	54(80.6)		39(58.2)	28(41.8)	
Marital status	Married couple	123(44.2)	27(22.0)	96(78.0)	7.543**	74(60.2)	49(39.8)	N.S.
	Single	155(55.8)	57(37.3)	98(62.7)		98(63.4)	57(36.6)	
Religion	Accepted religion	219(78.8)	70(31.8)	149(68.2)	N.S.	146(66.7)	73(33.3)	10.188***
	Atheist	59(21.2)	14(25.4)	45(74.6)		26(44.1)	33(55.9)	
Number of diseases	1	68(24.5)	14(20.6)	54(79.4)	8.854**	48(70.6)	20(29.4)	N.S.
	2-3	136(48.9)	52(38.8)	84(61.2)		82(61.2)	52(38.8)	
	Over 4	74(26.6)	18(24.3)	56(75.7)		42(55.4)	34(44.6)	
Ownership of house	Owned	244(87.8)	74(30.6)	170(69.4)	N.S.	162(66.5)	82(33.5)	17.425***
	Rent	34(12.2)	10(29.4)	24(70.6)		10(29.4)	24(70.6)	
Dwelling period	Under 10 years	75(27.0)	11(14.7)	65(85.3)	12.282**	32(42.7)	43(57.3)	23.479***
	10-20 years	89(32.0)	33(37.1)	55(62.9)		52(58.4)	37(41.6)	
	Over 20 years	114(41.0)	40(35.1)	74(64.9)		88(77.2)	26(22.8)	
			84(30.2)	194(69.8)		172(61.9)	106(38.1)	

*p<.05 **p<.01 ***p<.001

녀와의 동거를 희망하고 있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집단은 37.1%, 20년 이상인 집단은 35.1%로 높게 나타났다(p<.01). 그러나 성별, 연령, 월평균 가계생활비, 종교유무, 가족적 지원, 사회적 지원, 주택의 유형, 주택의 소유 등은 초고령노인기의 자녀와 동거희망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문제 3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주거환경적 요인들이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 희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택소유, 거주지속기간 등이 영향요인이었다.

중학교졸업 이상인 경우는 현재의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졸업이하나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경우 현재의 주택보다는 노인용 공공임대주택이나 실버타운 등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종교가 있는 경우 66.7%가, 자가소유 노인은 66.5%가,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77.2%가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이 현재의 주택에서 지속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는데, 노후에 현재의 주택에서 그대로 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주거비와 관리비, 주택관리의 어려움으로 나타나 주거비 지출을 염려하지 않는 주거생활 보장이 필요하며, 개조비용지원, 입주혜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개조지원이 필요한데 (Park, Choi, & Jee, 2006), 특히 욕실, 화장실, 계단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실정이지만 개조비용의 부담이 되는 가계의 경우 비용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월평균 가계생활비, 질병보

유, 가족적 지원, 사회적 지원, 주택의 유형 등은 현재 주택에서의 계속 거주희망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초고령노인의 자녀와의 동거희망과 지속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

연구문제 4의 초고령노인의 자녀와 동거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주거환경적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초고령노인기의 자녀와 동거를 희망 연구모형은 Wald 통계량 39.934(p<.001), 자유도 18, χ^2 통계량 36.755 (p<.01)로 Logistic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노인기의 자녀와의 동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가족수, 거주지속기간이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희망이 0.17배씩 감소했으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자녀와 동거희망이 0.61배 (Exp(B)의 값) 낮아진다(p<.01). 가족수가 1명 많을수록 자녀와 동거희망이 1.43배 증가하며(p<.01), 거주지속기간이 1년 증가할수록 자녀와 동거희망이 1.03배씩 높았다 (p<.05).

즉 초고령노인기에 자녀와의 동거희망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가족수가 많을수록, 거주지속기간이 길수록 높았다. 그러나 매개변인으로 예측했던 주거만족, 주거결함, 생활만족은 자녀와 동거희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4의 초고령노인의 현재 주택에서 지속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주거환경적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초고령노인기의 지속 거주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Wald 통계량 15.474($p<.001$), 자유도 18, χ^2 통계량 117.433($p<.001$)로 나타나 Logistic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초고령노인기의 현재 주택에서 지속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가계 월생활비, 질병보유, 가족수, 주택소유, 거주지속기간, 주거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현 주택에 계속 거주희망이 .69배 낮았으며($p<.01$), 종교가 있는 경우 현재 주택거주 희망이 4.55배 높았다

가계 월생활비가 만원씩 증가할수록 계속 거주희망이 .005배씩 낮아졌다. 질병보유 수가 1개씩 많아질수록 현재 주택거주 희망이 .028배씩 낮아졌다($p<.05$). 가족수가 1명씩 많아질수록 현재주택에서 계속 거주희망이 2.25배씩 높았다($p<.01$). 자가소유일 경우 현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희망이 임차보다 8.19배 높았으며($p<.01$), 거주지속기간이 1년 증가할수록 지속거주 희망비율이 1.05배씩 높았다($p<.001$).

이는 Lee & Park(2009)의 연구에서도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거이동보다 정착을 원하는 것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거만족도가 1점 높아질수록 현재 주택거주 지속이 1.43배 높게 나타났다($p<.001$). 즉 종교를 가지고 있고, 자가주택이며, 가족수가 많고, 현재의 주택에서 오래 거주한 노인일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을수록 초고령노인기에도 계속 현재의 주택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택에서의 지속거주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은 주거만족도 변인만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결함과 생활만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노인들의 주거보장을 위하여 현재 노인들이 초고령노인이 되는 85세 이후에 자녀와 동거희망여부와 선호하는 주거에 대하여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만족도는 자신의 경제상태를 양호하다고 인지할수록, 친지의 지원이 많을수록, 남성노인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결함은 주택소유, 연령, 주관적 경제상태, 종교, 배우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월평균 가계생활비, 거주지속기간, 성별, 주택유형 변인이 유의한 변인이었다. 자신 소유의 주택이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여성이면서 단독주택에 오래 거주한 노인일수록 주거결함이 많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으나 개조나 수리를 하기에는 경제적 능력과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택보장의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거주지속기간, 주택유형, 주거결함, 가족의 지원, 주택소유, 종교유무 등이었다.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거결함이 적을수록, 가족의 지원이 많을수록,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종교가 없는 경우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력이 큰 변인들이 개인적 변인이나 사회적 변인에서는 가족의 지원변인만이 영향을 미치고, 주거환경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미루어 노인이 거주하는 환경의 개선을 통해 생활에 더 만족하고 삶

Table 9. Logistic Regression on the Factors Affecting Decisions of Living with Their Children and Wishing to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N=278)

	Living with their children			Wish to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P.E.	S.E.	Exp(B)	P.E.	S.E.	Exp(B)
Sex (male) ^D	-.284	.370	.752	.136	.413	1.146
Age	-.012	.034	.988	-.015	.037	.985
Education	-.182*	.088	.833	-.009	.096	.991
Marital status ^D	-.931**	.358	.394	-1.170**	.468	.310
Religion ^D	.422	.391	1.525	1.515***	.429	4.548
Monthly expenditure (10,000won)	.000	.002	1.000	-.005*	.002	.995
Economical condition	.053	.088	1.054	-.132	.104	.876
Number of diseases	-.064	.117	.938	-.316*	.142	.729
Health condition	.058	.078	1.060	-.008	.096	.992
Number of a family	.360**	.116	1.434	.812**	.312	2.252
Support from family members	-.039	.078	.962	-.130	.098	.878
Support from friends and relatives	.039	.077	1.040	.024	.094	1.024
Type of house (apartment) ^D	-.311	.353	.733	-.399	.378	.671
Ownership of house ^D	.359	.550	1.432	2.104**	.665	8.196
Dwelling period	.025*	.011	1.026	.049***	.015	1.050
Housing satisfaction	.020	.054	1.020	.356***	.075	1.428
Defects of a house	.021	.016	1.021	.002	.017	1.002
Life-satisfaction	.018	.079	1.018	-.015	.090	.985
Constant	-2.057		2.795	-4.207		3.001
Log likelihood			302.451***			249.248***

* $p<.05$ ** $p<.01$ *** $p<.001$

^D: dummy variable

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초고령노인기에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는 경우가 69.8%였으며,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는 30.2%였다. 초고령노인기에 선호하는 주거는 현재의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61.9%로 새로운 주택이나 노인전용시설 등으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가족수가 많을수록, 거주지 속시간이 길수록 자녀와의 동거희망이 높았다.

다섯째,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자가주택이며, 가족수가 많고, 현재의 주택에서 오래 거주한 노인일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을수록 초고령노인기에 계속 현재의 주택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소유의 주택이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여성이면서 단독주택에 오래 거주한 노인일수록 주거결함이 많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축한지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주택에 대한 개조나 수리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개조나 수리를 하기에는 경제적 능력과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택내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집단이므로 주택보장의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연령이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주거결함을 가진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현재의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안전한 환경으로의 주거개선이 요망된다. 현재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주거결함요인들(바닥의 높낮이차, 미끄러운 바닥재료, 화재 및 가스경보장치 등)은 심각하지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적절한 정보와 수리비용에 대한 보조가 시급히 요망된다. 주거환경의 개선이 단순히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개선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내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개인과 사회 모두의 부양부담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초고령노인기에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는 경우가 70% 정도였으므로, 노인들이 가족의 부양을 받지 않고도 혼자 또는 노부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재가노인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적절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초고령노인기에 현재의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62%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초고령노인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현재의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aging in place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사회의 부양부담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북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 내에서 조사되어 서울이나 광역시보다 경제적 여건이나 주거환경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사료된다. 후속연구로는 노인임차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위한 연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인주거유형의 개발, 노인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성공적 노화와 관련되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조수리 전후의 비교 연구 등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REFERENCES

1. 박신영(2008).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주거*, 3(1), 통권 5권, 31-35.
2. Cho, S., & Jun, E. (2009). A study on the stage of elderly households' for the elderly housing.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0(5), 113-122.
3. Chung, K. (2002). Due to changes in family elderly dependants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Welfare Policy Forum*, 68, 20-27.
4. Han, G. (1998). Role of the family as an informal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frail elderly in the 21th centur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8(1), 46-58.
5. Hong, H. (2005). A study on the minimum standards of housing repair for older people living in the communi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2), 11-22.
6. Jeon, H. (2010). The impact of stress and coping mechanism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oldest-old.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7, 51-70.
7. Kim, J. (2007). Living arrangement transition in old age.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0(1), 1-24.
8. Kim, T., & Seo, S. (1987). A study of life satisfaction and housing environment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7, 77-92.
9. Koh, S. (1990). *A Study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Planning for the Elderly Apar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0. Kwak, I. (1998). Residential preferences by occupation and health status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1), 43-59.
11. Kwak, I. (2009). Characteristics related to domestic accidents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4), 55-66.
12. Kwak, I. (2009). The elderly willingness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6), 141-153.
13. Kwak, I., & Hong, S. (2009). Characteristics related to preferences on living arrangement and residence of the elderly.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4), 17-38.

14. Kwon, O. (2008). A Survey on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with handicap.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9, 7-32.
15. Lee, K., & Park, S. (2009). A study on the elderly households' housing needs for aging in plac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0(5), 123-132.
16. Lee, M., & Lee, H.(1997). Residential typ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3(1), 97-105.
17. Lee, Y., Kim, M., & Lee, J. (2007). Preferred living Arrangement of the elderly referring to the possible provision of housing services. *Journal of the KIEAE*, 7(5), 99-106.
18. Lim et al .(2007). *Social Services for the Aged*. Hakhyun-sa: Seoul.
19.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 *2007 Housing Survey Report*.
20. Oh, C., & Lee, Y. (1992). Criteria for elderly's sub-situations to identify their housing need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2(2), 123-137.
21. Park S., Choi, E., & Jee, E. (2006). Analysis of needs of housing among the elderly and the future-elderly, *Huri Focus*, 14, 1-25.
22. Park, S., Jee, E., Choi, E., & Han, S. (2006).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elements that affect the housing preference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4, 81-104.
23. Park, S. (2011). Housing &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11 Conference, 1-25.
24. Shin, H., & Lee, J. (2008). A study of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in advanced age socie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5), 15-25.
25. Statistics Korea (2007). *2007 Social Statistics Research Report*. www.kostat.go.kr.
26. Zimet, C., Dahlem, N., Zimet, S., & Gorden, F.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27. <http://www.index.go.kr/egams/stts>
28. [http://www.kostat.go.kr/\(2011.09.21.\)](http://www.kostat.go.kr/(2011.09.21.))

접수일(2011. 9. 23)
 수정일(1차: 2011. 11. 9)
 게재확정일자(2011. 12. 7)